

오는 12월 3대 해상교량 건너는 ‘부산국제마라톤’ 열린다

부산 최초 풀코스 마라톤 운영
‘다리를 건너, 한계를 넘다’ 슬로건
10km 로드레이스 등 2개 부문 진행

부산의 푸른 바다와 도심을 한눈에 담으며 달리는 역대급 규모의 마라톤 축제가 울거울 찾아온다.

부산광역시시는 오는 12월 6일, 부산 벡스코(BEXCO) 일원에서 부산 최초의 풀코스(4만2195km) 마라톤 대회인 ‘부산국제마라톤(Busan International Marath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등 부산을 대표하는 3대 해상교량을 모두 통과하는 독보적인 순환 코스로 마련되어 전국 러너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다리를 건너, 한계를 넘다(Cross The Bridges, Go Beyond)’로 확정됐으며, 대회 준비를 위한 공식 홈페이지도 본격적으로 개설됐다. 종목은 마라톤의 꽃인 풀코스(42.195km)와 대중적인 10km 로드레이스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지난 2024년 부산 광안대교에서 열린 ‘2024 부산바다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광안대교를 달리고 있다. /부산일보

다. 모집 인원은 총 1만 2000명 규모로 풀코스 5000명, 10km 코스 700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풀코스는 부산의 해안선과 랜드마크를 모두 관통하도록 설계됐다. 벡스코를 출발해 요트경기장, 동백섬사거리, 운촌삼거리를 지나 광안대교에 진입한다. 이어 용당램프, 대연고가로,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를 차례로 건너 뒤 충무동사거리에서 반환한다. 반환 이후에는 다시 역순으로 남항대교와 부

산항대교, 광안대교를 거쳐 출발지인 벡스코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다.

다만,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와 대교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만큼 풀코스의 참가 자격은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안전하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4시간 30분 이내 완주 기록 보유자’로 참가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참가 신청 시 다른 대회의 공식 기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을 최소화하면서도, 마라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풀코스 참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열리는 10km 코스는 광안대교 상판에서 한차례 출발하는 레이스다. 이후 광안리램프, 49호광장, 삼익비치산책로, 광안리해수욕장, 수변해변로, 수영교를 거쳐 벡스코 리더스빌딩 앞에서 마무리된다. 수려한 바다 전망을 보며 달릴 수 있어 라이트 러너와 동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회의 참가비는 8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수도권 주요 풀코스 마라톤 대회의 참가비가 15만 원 안팎까지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부산시는 이번 대회를 해양도시 부산의 특색을 극대화한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육상연맹(WA)의 국제공인 마라톤 대회로 승격시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지역주민 대학 장학금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신청은 양남면 나야리 월성스포츠센터 1층 방문 접수를 비롯해 우편과 이메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에 접수 마감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본인 또는 주민의 대학생 자녀로,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북=김진곤 기자

김해시-IBK기업은행

중소 금리우대 지원 협약

김해시가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해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업체가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김해시의 이차보전 지원과 별도로 기업은행이 대출금리를 최대 연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이차보전이란 지자체가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 실질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목포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목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은 주요 관광지과 공공기관, 문화시설, 버스정류장 등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내버스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이동 중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분석 결과 데이터 사용량은 2024년 80만GB에서 2025년 86만GB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기장군

‘기장프렌즈’ 기념우표 발행

기장군과 기장우체국이 관광 캐릭터 ‘기장프렌즈’를 테마로 한 한정판 기념우표를 공동 기획·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는 지역 관광자원을 콘텐츠로 재해석해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시대 들어 위축되고 있는 우표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초 관광 홍보와 우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기념우표 제작을 함께 추진해 왔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대경권 AI·첨단산업 인재양성

대구시·경북대와 ‘맞손’
AI 교육·연구 거점대학 육성
국가 공모사업 공동 대응도

경북도가 대구시, 경북대와 손잡고 대경권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북도는 14일 경북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성장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경권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대학을 공동 육성하고 초광역 공유대학 추진에도 협력한다. 이를 통해 대경권 첨단·전략산업 분야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점 육성 분야는 AI를 비롯해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대경권 핵심 산업이다. 세 기관은



(오른쪽부터)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허영우 경북대 총장, 추경호 대구시장이 14일 경북대 본관에서 열린 지역 성장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 분야 인재양성과 함께 국가 공모사업 대응에도 공동으로 나선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패키지형 인재양성,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초광역 공유대학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도 협력하고 있다.

또 경북대를 중심으로 일반대와 전문대가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연구, 자원 공유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 올해 첫 2250억 규모 추경안 편성

확정 시 총예산 2조3250억으로

경주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225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총예산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325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1조9790억원, 특별회계는 3460억원 규모다.

민생경제 분야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14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특별보증 이차보전 10억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예산도 포함해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 지원에 나선다.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사업도 담겼다. 동국대~현곡 상 구간 도로개설 23억원, 천북 동산교~면소재지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보문~구정간 도로개설 5억원을 편성했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 하천 정비,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POST APEC 기념관 조성 25억원, 경주읍성 성벽 복원 15억원, 인왕동사지 석탑 복원 15억원, 흥륜사지 발굴조사 10억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는 안강읍 주민복지시설 건립과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등에 85억원을 편성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 1.5억弗

전년 동기비 19.8% 늘어

경남도는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이 1억 561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8%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 2억 66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올해 목표액 2억 9000만 달러의 53.9%를 상반기에 달성한 수치다. 전국 수산식품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전국 4위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굴이 최대 수출 품목 자리를 지켰고, 고등어, 명태, 청어 등 냉동 어류의 수요가 주요 수입국의 공급 부족과 맞물려 급증하면서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밀키트와 즉석 간편식(HMR)

등 가공 제품도 전체 수출의 27.7%를 차지하며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자리잡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력 3개국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현지 굴 폐사 여파로 경남산 냉동 통조림 굴 수요가 높았고, 중국은 자국내 수급 부족으로 명태와 고등어 수입을 늘렸다. 미국에서는 비건·웰빙 트렌드에 힘입어 한천과 가리비 등 신규 품목이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8월 도교 수산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 현지 바이어를 공략하고, 도내 수출 가공업체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해외 판촉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천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추진 의지

김병삼 시장, 영천경마공원 방문

영천시 김병삼 시장이 9월 13일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을 찾아 주요 시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시장은 14일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조성 현황과 개장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관람대와 경주로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영천시는 경마공원 개장을 계기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 공동 유치체계 구축을 비롯해 관계기관 협의, 유치 논리 개발, 후보부지 검토 등 단계별 유치 활동도 진행 중이다.

시는 영천이 한국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렛츠런파크를 보유하게 되는 만큼 이를 본사 이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마공원과 본사가 같은 지역에 위치할 경우 운영 효율성 향상



김병삼 영천시장(가운데)이 한국마사회 관계자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과 함께 말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경마공원 활성화와 연계해 말산업과 관광, 숙박, 문화·공연,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발전 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천시는 앞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천(경북)=김진곤 기자